

## I. 서론

### 1. 연구배경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를 중심으로 한 국제감독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공시 강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기본적으로는 ① 재무성과 ② 자기자본, 지급능력 및 유동성을 포함한 재무상태 ③ 리스크관리전략 및 실행 ④ 신용, 시장, 유동성, 운영 및 기타 리스크 익스포져 ⑤ 회계정책 및 실무지침 ⑥ 주 업무, 경영층 및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 공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금융회사간 업무영역 장벽이 없어지는 등 금융겸업화 현상과 금융위기 발생은 금융시스템 안전을 위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공시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켜 왔다. 이에 국제감독기구도 금융회사의 전통적인 회계처리방식에 근거한 재무회계정보보다는 리스크와 관련된 미래지향적 정보의 공시를 보다 중시하기에 이르렀으며, 국제감독기구 및 금융회사가 참여하여 실현가능한 공시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 공시 중시의 감독정책 변화라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공시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점검하고, 보다 글로벌한 리스크 공시의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험권 역시 신BIS협약(Basel II)의 시행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BIS협약에 포함된 리스크 공시체계를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재무건전성체제에 기초한 리스크 공시 방안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기준 및 권고안, 선진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시 사례 등에 대한 연구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리스크 공시를 둘

러싼 규제 및 감독과 시장에서의 반영 추이 등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 체계의 확립은 은행 중심의 신BIS협약뿐만 아니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나 국제보험회계기준 등 보험 관련 국제감독기구의 견해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기준과 선진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시 사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리스크 공시체계의 제반 문제점 등을 비교·분석한 후, 국내 실정에 부합한 리스크 공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리스크 공시에 대한 감독정책의 확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시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국제감독기구의 공시강화에 대한 노력은 1994년 10개 중앙은행의 실무위원회에서 발표한 Fisher 보고서(Euro-currency Standing Committee 1994)에서 시작되었다. Fisher 보고서 발표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및 공시기준 강화를 권고하였는데, BCBS는 1998년 9월 "Enhancing Banking Transparency"라는 보고서에서 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 유형 및 공시요건을 제시하였고, 2000년 9월 "Best Practices for Credit Risk Disclos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용리스크의 회계처리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995년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에서 공동으로 세계적인 은행 및 증권회사의 트레이딩 및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반영하여 공시강화를 위한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1999년 12월 "Trading and Derivatives Disclosures of Banks and Securities Firms"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71개 은행 및 증권회사의 시장리스크 및 리스크관리방법을 제시함과 아울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하여도 공표하였다. 특히 1996년 6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의 국제감독기구는 리스크 공시에

대한 보다 실현가능한 작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회사로 구성된 합동실무 작업반(multidisciplinary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는데, 합동실무 작업반은 2001년 4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헤지펀드의 리스크에 관한 공시개선을 위한 공시사항을 최종보고서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국제결제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된 새로운 자본요건에 대한 협약인 신BIS는 2005년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리스크 공시 항목이 포함되었다.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에 대한 연구도 신BIS협약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국제계리사회(IAA),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신BIS협약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금융감독원 내 전담조직인 신BIS실을 신설하여, 여러 차례의 워크숍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주요 관심사는 은행의 리스크 측정에 관한 사항이다. 보험개발원(2004)의 연구에서는 Solvency II의 추진상황 하에서 리스크 공시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04년 말 이후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공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 작업반”에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련 공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작업반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련 공시항목 확대, 공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공시목적별 공시내용 재정비 등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및 현행 제도 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감독당국의 조사·연구와는 달리 김정렬(2004)은 금융기관 공시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시장규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리스크 공시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미흡한 이유는 신BIS협약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으며, 보험권의 리스크 공시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게 될 Solvency II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체계를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연구는 리스

크 공시의 방향성을 선행적으로 모색하고 적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공시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주요 연구방법은 이와 관련된 국제적 흐름에 대한 문헌조사, 외국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조사와 선진 금융회사의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국내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 현황을 국제적 흐름 및 선진사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한 후,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별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리스크 공시에 대한 로드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최근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규제의 변화에 대해 개관하고, III장에서는 국제감독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시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IV장에서는 외국의 규제 및 선진 금융회사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V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체계 및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VI장에서는 향후 개선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VII장에서는 결론 및 한계점을 지적하였다.